아토피 · 건선 · 난치성피부질환전문
이든한의원
진료시간 오전 9:00~1:00 (점심시간 1:00~2:00) 오후 2:00~7:00 (토·공휴일 5시까지, 주일 휴진)
원장 송 창 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67번지 SK엠시티 드라마파크 2층 212호
Tel : 02)2264-8822 · 8833
Fax: 02)2264-8833

JTNTV.KR 지저스타임즈 신문

지저스타임즈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학생 모집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에 대해 자세한 것은 본보 광고 참고
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 출구 송내역방향 200m)
대표전화:032)323-5552, Fax : 032)322-0099
H · P:010)2956-9191 야간:032)321-9109 E-mail : keyone209@hanmail.net

이사장 : 정기환 | 사장 : 소진우 |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55호 2012년 6월 25일 월요일

한기총 총무 최명우 목사 취임 '최선을 다짐'

행정전문가로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화합과 연합을 위해 헌신할 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6월 15일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기총 제9대 총무 최명우 목사(사진 · 순복음강남교회)의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신임총무 최명우 목사는"한기총은 한국교회의 화합과 연합, 그리고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단체가 되도록 맡은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총무취임감사예배에 한국교회의 지도자와 목회자, 순복음강남교회 성도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기총 회원교단들의 총회장과 총무 등이 참석을 해 화합의 장이 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기총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조속히 한기총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명우 신임총무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대표회장님을 잘 보필할 것이며, 업무파악에 주력하고, 한기총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는 또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처럼 참신함으로, 그러면서 경솔하지 않게 행동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총무는 한기총 역대 총무들에 비해 젊은 층에 속하는 것도 약점이면서도, 강점이라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륜 있는 선배님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을 것이라 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한기총의 위상을 세우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한국교회의 재 부흥과 대사회를 향한 기독교의 목소리가 높고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최 목사는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한기총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을 찾고, 위상을 살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직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잘 읽어서 하나님께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홍재철 대표회장과 최명우 총무 등 새 식구들이 변하지 말아야 할 복음을 굳게 붙들고, 새 시대 새 능력으로 전진해야 할 줄 믿는다"고 권면했다.

이어 지 덕 목사(증경회장), 엄신형 목사(증경회장)가 격려사로 최명우 총무를 격려했고, 이기창 목사(공동회장), 안기석 종무관(문체부), 김경문 목사(영목회 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조용기 목사(명예회장)는 영상축사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황규철 목사(총무협 부회장)의 약력 소개 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최명우 목사에게 총무 임명장을 수여하고, 정해송 목사(총무협 부회장)의 축하패 증정과 배인관 장로(사무총장)의 광고, 이승렬 목사(공동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에서는 송태섭 목사(총무협 증경회장)의 오찬기도와 케익커팅, 기념촬영 등이 있었다.

한편 최명우 목사는 한세대 신학과 FAITH THEOLOGICAL(MDV. Thm),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D.min), 일본 성서신학원(D.min) 등을 졸업 및 이수하고, 미국서 산호세 벧엘순복음교회, 시카고 순복음은혜교회 등을 거치며 선교사역을 해왔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송파성전, 성동성전, 영산성전 담임, 교무국장, 목회담당 부목사 등을 역임해 온 실무형 행정전문가로 알려졌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 2012 가족모임에 큰 성과!

작가로 한국교회에 기독교 영상물 컨텐츠 작업에 초석이 되길!



대한 기독사진가 협회(회장 엄영수 목사)는 전북 임실군 운암면소재 동신수양관에서"함께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회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1박2일간 2012 대기협 전국 가족모임을 가졌다.

이날 준비 위원장 김종민 목사(전북지회장)의 인도로 예배가 드려지고 회장 엄영수 목사(안양 대광교회 시무)는 설교에서 기독교 영상물 작업에 사명을 가지는 작가로 한국교회에 영상물 컨텐츠 작업의 초석을 다지는 대한 기독사진가 협회가 되기를 당부하고, 이를 위해 0 순위의 사명을 가지고 작품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예배 후 이어진 순서로 사진 보정과 인물 사진에 대한 열정 넘치는 특강으로 회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열강에 심취해 있었다.

다음날 국사봉 출사와 경기전에서 모델 촬영과 한옥마을을 작품으로 남기는 순서로 2012 대기협 전국가족모임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쳤다. 한편 대기협 임원 및 운영진은 고문/ 이상중 목사, 이진호 목사, 회장단 /회장 엄영수 목사, 부회장 정기남 목사, 김갑식 목사, 김종욱 목사, 나순자 집사, 감사 이진호 목사, 천헌옥 목사, 회계 전영란 권사, 운영위원/ 김영준 목사, 조성삼 목사, 김윤경 목사, 신철이 목사, 이상철 장로, 주승철 집사, 최건기 집사, 김기환 집사, 오준규 집사, 최정희 집사, 사무국장 이은경 집사, 총 무 박현주 집사, 전국지회장 서울지회장 강승조 집사, 경기지회장 장학규 목사, 인천지회장 천헌옥 목사, 전북지회장 김종민 목사, 경상지회장 김길수 집사 제주지회장 김대곤 집사, 충청지회장 곽완근 목사 등이다.

사설

아직도 남아있는 6.25잔재

1950년 6월 25일은 세계가 함께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었던 북한의 불법 남침이다.

1945년 해방을 맞아 그 기쁨이 남아있고 나라는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승만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북한은 남침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북한에서는 6.25사변을 남쪽에서 먼저 북침했다고 떠들지만 1994년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하는 극비문서를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

한국전쟁당시 김일성이가 담은 300여종의 고문서 사본에는 1949년 1월부터 1953년 8월까지 소련 외무부와 북한 외무성간에 오고간 전문 그리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록 등 한국전쟁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극비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문서 중에는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에게 남침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남침 시기 등에 대한 긴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극비화담이 같은 해 3월 30일 있었던바"남한 측이 수용할 수 없는 평화통일 방안을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투행위를 개시하여 남한과 북한 중 누가 최초로 전투를 개시했는지 진실을 은폐토록 하였다.

북한이 남침하여 서울만 점령하면 남로당 20만지하당원이 봉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남침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후루시초프 회고록에서도 1949년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때에 남침을 위한 완벽한 계획서를 가지고 왔다. 고 밝혔다.

1950년 6월 25일 새벽3시 38세의 김일성은'폭풍이라는 공격개시 암호명과 함께 전차를 앞세워 무장군 북한군은 일제히 기습공격을 가해 왔다. 같은 날 05시 10분경 춘천 7연대 임부택 연대장이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부관 라임관 중위는 잠을 잔다하여 전화를 통하지 못했다. 술에 취한 참모들이 어디에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서울에 돌입한 북한군 부대는 105전차부대와 이권무가 이끄는 제 4사단의 제 18연대로 그 부대는 덕수궁에 진지를 구축하고, 1950년 6월 28일 새벽2시에 한강교의 폭파로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피해로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때에도 북괴군은 계속하여 남으로 전국토를 휩쓸고 점령해 갔다.

1950년 6월 28일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8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북한의 무력남침을 평화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고 파병을 결정했다. 한국전 참전 16개국과 인원은 미국 302,483명, 호주 2,282명, 캐나다 6,146명. 뉴질랜드 1,389, 영국 14,198명, 필리핀 7,000명, 터키 5,455명. 네델란드 1,700명. 룩셈부르크 44명, 콜롬비아 1,068명. 벨기에 900명. 에티오피아 1,271명. 프랑스 1,119명, 그리스 1,263명. 남아프리카 826명. 태국 1, 294명이다. 하나님은 멕아더 장군을 보내시고 성공률 5000분의 1이라며 모두가 반대하는 가운데 인천상륙작전을 1950년 9월 15일에 감행 성공리에 마치고 서울은 9월28일 수복하므로 전세가 바뀌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은 전적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었다.

우리는 6.25이후 최고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고정간첩들과 종북자들은 또 다른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지난 잃어버린 10년, 정치에 힘입어 입법 사법 행정부와 각 처소에 남로당이 아닌 종북자들 수십만이 깔려 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다. 제3차 세계 대전에 거의 이르기까지 심각하였던 6.25 잔재가 지금 우리 주변에 활개를 치고 있다. 저들은 금강산 관광객을 총격 사망케 했고,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종북자들은 여전히 북한의 만행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법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진우 목사 2011년-2012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1/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5 동탄사랑의교회(이주훈 목사)
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3 감리교단 제직세미나
16~19 성마을교회(권동희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7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011년 2월
31~4 칼보디아 선교대성회
6 효창중앙교회(최복태 목사)
7~9 솔산반석교회(김형진 목사)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 한강중앙교회(최창규 목사)
21~23 미수교회(전웅구 목사)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7~3/2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3월
봄철축복대심방
7~10 성석교회(편재영 목사)
13~16 월계성도교회(김봉하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1 온누리교회(조민환 목사)

2011년 4월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7~9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12 정기노회
12~14 장선교회(이광규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8~20 내곡교회(함형민 목사)
25~27 신갈장로교회(이광수 목사)

2011년 5월
2~4 서울서지방여전도연합성회
9~1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24~25 남양주기독교연합성회(회장 이정근 목사)
31~6.3 선교지방문(노회선교위원회)

2011년 6월
6~8 소망큰교회(이용찬 목사)
13~17 선교지 방문
17(금)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0~22 생명나무교회(성낙근 목사)
26~7.2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7월
4~6 새영교회(이영근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3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25~27 원주벧엘교회(김경호 목사)

2011년 8월
1~4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5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5~18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2~25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3 오산리 금식기도원
29~9/1 도곡산기도원(양예자 원장)

2011년 9월
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5~9 온누리복음화협의회(엄기호 총재)
12~15 몽골 할렐루야 교회(전 용 목사)
18 성인교회(이현국 목사)
19~22 교단총회
24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6~28 성은교회(지동수 목사)

2011년 10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5 양주 비전교회(김학현 목사)
10~12 진건, 퇴계원기독교연합성회(박건익 회장)
1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7~19 은천교회(허세동 목사)
23~2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7 오산리 금식기도원
28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31~11/2 광능래교회(김상용 목사)

2011년 11월
3 베데스다기도원 (허영혜 원장)
7~9 반석교회(이종현 목사)
14~16 주안성결교회(진영학 목사)
17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1~24 주님의교회(김여경 목사)
2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0 저광교회(김창수 목사)

2011년 12월
5~7 성광교회(유인덕 목사)
8 성산수양관(윤호균 목사)
12~16 이도 선교 집회
19~22 소망영성원(연인애 원장)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6~28 반석중앙교회(이명구 목사)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9 예제교회(류준모목사)
30-1/2흰돌교회(송우종목사)

2012년 2월
6-9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광수목사)
16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목사)
27-29 증평평강교회(고영철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심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종목사)
5-6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9-10 정기노회
11-13 베데스다교회(허영해목사)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탄제자들교회(이석원목사)
23-25 주사랑교회(김주환목사)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좋은교회(이평찬목사)
13-1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1-24 광음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찬양교회(윤병구목사)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11-13 성산교회(신승종목사)
18-20 새빛교회(윤형진목사)

2012년 7월
2-5 사명자영성원(송요섭원장)
9-10 신학생여름세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2년 8월
8-10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3-6 온누리연합수련회(엄기호총재)
10-12 재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단총회
24-26 샘물교회(이옥석목사)

2012년 10월
7-9 퇴계원장로교회(김동권목사)
15-16 정기노회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9-9/11 성지순례

2012년 11월
---9 성지순례
11-14 동서울교회(라계돈목사)
19-21 경천교회(이원경목사)
26-28 예주비전교회(이승엽목사)

2012년 12월
3-5 임마누엘교회(정태열목사)
10-12 예원교회(한규식목사)
17-21 필리핀선교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한기보 6.25상기 국가안보 위한 기도 · 세미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 사진왼쪽)는 21일(목)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루이스홀에서 제62주년 6.25상기 기념예배 및 국가안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박영근 목사(예수교사도의 신앙교회 감독)의 기도, 이규상 목사(예장 충헌총회 총회장)의 성경봉독, 임바울 목사(예장 보수합동연합총회 총회장)는 갈2:20~21절을 주제로"십자가의 은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김재인 목사(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사랑 목사(예장 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신한철 목사(예장 합동고수총회 총회장) 등이 국가안정과 본회발절,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오승겸 목사(기독교한국성결회 총무)가 헌금기도를, 본 협의회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지왕철 목사(본 협의회 상임고문)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박동호 목사(본 협의회 상임회장)의 사회로 본 협의회 박수용 목사의 기도로 제2부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특별강사로 초청된 국방대학원 김열수 교수(국방대학원 군사전략학과)는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안보"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본 협의회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여느 때보다 종북세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때 또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의 각 교단장과 총무 등, 우리회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국가안보를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써 나갈 것을 주문했다.



봉담중앙교회 새성전 입당 및 임직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 봉담중앙교회(담임 목사 장질수)가 지난 6월 17일(주일)오후 3시 새 성전 입당감사예배 및 제직을 세우는 임직행사가 거행되었다.

1956년 이재현 집사 사랑방에서 개척교회가 시작되어 지난 4월 53주년을 맞았으며, 17일 1700평의 대지 위에 새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담임 장질수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기길선 목사(울성교회)의 기도, 본교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드려지고,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는"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제하의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했다.

이날 담임 장질 수 목사는 2부 안수집사 임직식을 집례하고 3부 3부 권사 취임을 집례하는 등 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었으며, 서만진 목사(선교사)축도로 마쳤다.

한국교회가 만만하니? 이번엔 '성결교 목사' 사칭

자칭 성결교 목사, 일간지에 '주일 예배는 불법' 전면 광고…기성 "본 교단과 무관"

최근 이단 신천지가 자신들의 홍보물에 교계원로인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이름을 사칭한 데 이어,일간지에 안식교의 교리를 광고한 인물이 성결교회 목사를 사칭하는 일이 일어나 해당 교단이 적극 대응에 나서, 교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안식교 주장과 같은 내용의 광고 일간지에 게재

지난 6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주일 예배는 비성경적"이라는 주장이 담긴 전면광고가 게재됐다. 광고를 실은 인물은 자신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 목사라고 밝힌 한성호 씨다.

자칭 '기성 소속 목사'라는 한 씨는 전면광고를 통해 "주일예배는 성경에 없는 불법이고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며 안식교와 같은 주장을 광고로 게재해 주일예배에 대한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기성이 밝힌 바에 의하며 '한 씨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는 무관한 인사'다. 기성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성호 씨는 본 교단 소속도 아니고 본 교단과 전혀 무관한 인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한 씨는 자신을 장로교 · 성결교 신학을 공부한 성결교 목회자라고 밝혔지만, 미주 총회에 확인한 결과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는 주로 워싱턴DC에서 활동 중이며, 2012년 초 미주 한인신문 종교면 하단에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실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고주는 안식교 목사

기성은 한 씨의 안식교 교리 주장 및 성결교회 목사 사칭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성결교회 소속 목사'를 사칭하면서 기성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식교와 매우 흡사한 내용으로 기존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성은 이에 "본 교단은 이미 1932년 '안식일에 과연 구원이 있느뇨'라는 작은 책자를 발행해 안식교 교리를 경계했으며, 1985년 제41회 총회에서 안식교를 이단으로 규정한바 있다"며 "따라서 한 씨와 주장은 성결교회의 교리와 신학과 맞지 않다"고 천명했다.

기성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박문수 교수(서울신대)는 "그의 주장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안식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며 "그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 안식교라는 것을 숨긴 채 대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간지에 무차별적으로 광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씨는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안식일교회 또는 재림교회) 기관지인 재림신문과 인터뷰를 한 적도 있다. 기성에 따르면 한국 일간지에 광고를 냈던 실질적 광고자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연락처도 안식교 목사였다.

기성은"강원 평창에 있다는 이 목사는 '안식일은 안식교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단체는 초교파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은 안식교 소속 목사이고, 이 단체도 '안식교와 전혀 상관없지는 않다'고 밝혀 사실상 안식교와 관련이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정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1개 지사 / 해외 25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예성 총회장 김두성 목사 취임 및 임직 예배드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91회 총회장 김두성 목사(안양중앙교회)는 6월17일(주일)오후 3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안양중앙교회 본당에서 예성 교단 제19회 총회장 취임예배 및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행사를 가졌다.

예성 부총회장 나세웅 목사 인도로 1부 총회장 김두성 목사 취임감사예배가 진행되어 부총회장 신치순 장로가 기도를, 총회회계 남상용 목사 장로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직전총회장 석광근 목사는 삿 9:7~21절을 인용"이런 지도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안양중앙교회 김두성 담임목사는 2부 순서로 장로장립과 예우권사 및 권사취임, 안수집사 등을 임직하는 등 취임식을 가졌다.

총회장 김두성 목사는 성결대학교에서 개최된 제91회 총회에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예성)총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날 임직식에서 증경총회장 오희동 목사, 원로목사 고용복 목사, 성결포럼 총재 이봉준 목사, 총회 회의록서기 공재영 목사, 등이 각각 축사와 권면을 하였으며, 창신교회 이종복 목사의 축복 및 만찬기도로 마쳤다.



웨신총회, 속초에서 2박3일 하계수련회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이하-웨신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지난 6월11일~13일(2박3일)까지 2012 전국 교역자 하계 수련회가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동해콘도에서 개최되었다.

명예대회장 성흥경 목사(총회장)는"실록이 우거져가는 설악산의 바람과 넓게 펼쳐진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사역의 현장에서 지친 동역자들이 쉼과 재충전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성 총회장은 개인의 책임의식과 양보와 화합이 절실한 때라고 말하고, 미덕을 갖춘 개인이 많을수록 가정과 교회, 국가와 민족은 발전된다고 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물을 찾고 계신다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딤전4:15)고 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성장의 계기로 삼아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이 성숙함을 갖자는 지시와 함께, 총회와 노회, 지 교회가 더 큰 진보와 창출이 되어지길 기원했다.

또한 대회장 이재갑 목사(부총회장)은 "아름다운 강원도 정정지역 속초 해안가에서 총회 교역자 수련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며 행복을 마음껏 충전하는 유쾌한 수련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 대회장은 '꿈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삶의 의욕을 불어 넣어주고, 앞날의 설계 속에서 기쁨으로 현실을 인내하며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하며 기도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랑하는 웨신 총회는 우리들의 희생의 섬김으로 만들어가고 존경하며 자랑할 때 성숙한 총회가 될 것이며, 또한 할 수 있는 성품과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나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꿈은 시간, 은혜가 풍성한 시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2012 전국교역자 총회 수련회 일정대로 11일 첫날 오후 5시 허성인 목사(대회회계)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부대회장 김춘택 목사(부총회장)는 야고보서 1:19~27절 말씀을 중심으로"영적성숙의 세 가지 징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대회종무 신언창 목사의 광고와, 명예대회장 성흥경 목사(총회장)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전국 각 노회의 노회장과 노회원을 소개하고, 실행위원 모임에서 총회 발전을 위하여 늦은 밤까지 화기애애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다음날 12일 아침 6시30분 장창윤 목사(총회서기)가 설교하고, 낮 시간은 노회별 MT, 관광 등을 가졌다. 오후 4시부터 총회장배 척사대회를 갖고 서인노회가 1등(상금 30만원), 대한노회 2등(20만원), 경향노회 3등(10만원), 한남노회 4등(5만원)까지 상금이 전달되었다.

이날 저녁 7시부터 시작된 특강에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성욱 교수(웨신대 역사신학)를 초청 "위로와 사명"이란 주제와 -혼돈시대 교회의 역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심' 으로 한 열강에서 많은 교역자들로 도전을 받게 했다.

김 교수는「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 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하는 하이텔베르크 교리문답 일부를 소개했다.

웨신총회 2012 전국 교역자 하계수련회는 13일 오전 6시 30분 대회장 이재갑 목사(부총회장)는 마5:48, 고후 7:1절을 중심해 "온전하라"는 폐회예배 설교를 끝으로 수련회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박우제 교수(웨민선교회 사무총장)는 웨신총회 전국 교역자 하계 수련회에서 지난 6월1일 웨신대 강당에서 9명이 강도사고시를 가진 후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관심이 웨신총회에 있다면서 웨민선교회는 학교와 총회간의 가교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5000여 명의 웨신대 출신인 동문들을 찾고 초청하여 웨신대 총동문회를 결성하는데 웨신총회가 적극 힘써줄 것과 기도를 부탁했다.

웨신총회, 웨신대원에서 강도사 고시 시행

총회와 신학교 관계회복 강도사 고시에 재학생들 크게 환영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6월 1일(금) 오전10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2012 강도사 고시가 실행되었다.

고시부 서기 이영풍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이재갑 목사(부총회장)의 기도, 고시부장 김춘택 목사(부총회장)은 다니엘서 3:13~1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소유할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고시부장 김춘택 목사는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제일 귀한 모델, 삶의 모델, 신앙의 모델, 목회의 모델이 되신다고 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대한 신앙을 설명하고, 강도사 고시에 응한 생도들은 이 시대에 참된 사역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인내를 갖고 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며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무 신언창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한동숙 이사장과 학교당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강도사 고시에 응한 생도들을 환영하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웨신총회는 웨민대 출신인 선배들로 주축이 되어 뜻을 같이하는 동역자들로 의기투합하여 한국교계에 모법된 교단, 표준 된 총회를 성사시켜 나가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총무는 웨신총회가 2001년도에 웨민대와 뜻을 같이하여 발족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상호 의견대립으로 공백기가 있어 왔다면서, 하지만 웨민과 웨신총회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뜻 깊은 강도사 고시를 웨민대에서 갖는 대업을 이루게 되었다는 광고와 더불어 교단의 발전사를 소개하고 총회장 성흥경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날 강도사 고시는 필기고사로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헌법, 논문은 나의 비전, 면접에는 각자 5분 설교실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총회에서 고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웨신총회와 웨민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웨민대 출신들로 인해 두 번째 강도사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학교와 총회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학교에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총회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틀이 보장되어 있으며, 각자가 소속된 노회에서 목사로 임직을 받은 후 주의 일 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시부장 김춘택 목사는 2012 제3차 강도사 고시가 시행된 것은 웨신총회와 웨민대 와의 협약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을 크게 환영하면서 앞으로 웨민대 출신들을 총회에서 받아드려 강도사 고시를 통해 교단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총회와 학교간의 관계를 위해서 더욱 주력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이날 웨신대 박우재 교수는 교단과 신학교간의 역사를 설명하고 45년간의 웨신대 출신인 5000여 명의 동문을 모교인 웨신대로 불러 모와 총동문회를 발족하자는 취지에서 가칭 웨민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총동문회를 통해서 재학생들에게 목회의 길을 연결하며, 또한 졸업한 동문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해외 선교사를 돕는 일에 목적이 있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박우재 교수는 웨민선교회 총무이며, 신언창 목사(웨신총회 총무)가 협동총무를 맡아 총동문회 복원사업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선교회 사무실은 곧 신학대학원대학교 내에 둘 예정이다.

한편 웨신총회(총회장 성흥경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실시한 강도사 고시에 9명이 응시했으며, 앞으로 많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웨신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속초 동해콘도에서 2012 하계수련회 성료

웨신총회 발전과 단합을 이룬 2012 속초 동해콘도에서의 하계수련회를 성은 중 마치게 된 것을 명예대회장 성흥경 목사를 비롯 대회를 위한 임원들 일동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 :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딤전 4:15)


총회장 성흥경 목사 (송석교회)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부총회장 김춘택 목사 (은천교회)


서기 장창윤 목사 (열린찬양교회)


부서기 정일량 목사 (향기로운교회)


회록서기 박영남 목사 (춘천중앙교회)


부회록서기 조철준 목사 (큰빛교회)


회계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


부회계 유윤주 목사 (지구촌교회)


감사 지영철 목사 (동서울교회)


감사 정규남 목사 (주복음교회)


감사 이 규 목사 (동산교회)


총무 신언창 목사 (성암교회)


간사 구정숙 집사







웨 신 총 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02)835-2606-7 팩스 02)835-2608
홈페이지 http://ws21.onmam.com
E-mail:sec21ch@hanmail.net

연등에 관한 교계의 시각

불교의 창시자 석가는 철저하게 무신론을 주장했다!



석가는 신도 없고 귀신도 없고 영혼이라는 존재도 없으며 자신역시 신이 아니라 단지 깨달은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죽을 때 유언하기를 '네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살아라 다른 것은 의지하지 말라' 고 했건만 시대가 흐르면서 불교가 원래 석가모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신적종교로 변질되고 말았다

지금 불교는 수많은 부처를 신으로 섬기고 있으며, 석가자신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 수많은 불교신자들이 석가모니상 앞에 엎드려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 죽은 석가가 이 사실을 안다면 가슴을 치고 한탄할 일이다

석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며 석가자신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석가역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80세에 이질 병에 걸려 설사를 하다가 죽어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주며 복을 줄 수 있겠는가? 석가의 가르침은 하나의 철학이지 결코 종교가 될 수 없건만, 석가 사후 제자들이 종교화하면서 석가를 신격화시켰던 것이다

불교의 무신론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석가가 무신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석가가 태어난 곳은 오늘날의 네팔 남부와 인도의 국경부근인 히말라야산(山) 기슭의 카필라성의 성주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났다.

석가가 태어날 당시 인도 지방에서는 브라만교(Brahmanism)를 신봉하고 있었다. 고대 인도에서는 불교나 힌두교보다 먼저 생성된 브라만교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 브라만교는 특정 교조(敎祖)를 갖지 않는다. 이 브라만교는 아리아인(人)이 BC 1500년경에 인도에 침입한 이후 신봉하였던 민속종교로, 넓게는 힌두교에 속한다. 브라만교는 인간을 네 가지 계급으로 나누어 놓았다. 일반적으로 이를 카스트제 혹은 '사성제 '라고 한다. 카스트제도란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그 아래는 '크샤트리아 '계급의 사람들이 정치. 무사 등 관료의 직무를 맡아서 군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바이샤 '라고 하는 평민들이 있고, 다시 노예계급으로는 '슈드라 '계급이 있었다. 이 카스트제도는 유럽계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입하여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만든 계급제도였다

그러므로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위의 두 계급(브라만. 크샤트리아)은 아리안 족의 차지가 되고 아래로 두 계급(바이샤 슈드라)은 원주민족이었던 드라비다족에게 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종교적 상황에서 석가가 태어났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석가모니를 낳다가 죽었고 석가모니는 어린 시절 이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매우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정반왕은 아들을 기쁘게 해 보려고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석가모니의 우울증은 차도가 없었다. 석가모니는 생각이 아주 깊었으며 아주 예리한 지성과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물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편이었다..

후에 결혼해서 라훌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출가를 하게 된다. 출가한 뒤 석가모니는 히말라야산으로 들어가서 브라만교의 고승들을 만나서 진리의 설법을 들었지만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었음, 여러 가지 고행의 수행을 하면서 석가모니가 궁금했던 것은 브라만교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과연 그런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였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인도 종교의 역사를 깊이 연구한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브라만교에서 섬기는 이 수많은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인간이 만든 인조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가? 연구결과 브라만의 모든 신들은 아리안족이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층계급인 바이샤와 수드라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딴생각은 하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브라만교의 카스트제도는 드라비다족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한 악한 욕심에서 나온 사악한 제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층계급의 드라비다족이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도, 현재 자신이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 악업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더 나은 계층으로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생각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처럼 아리아족이 절대다수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지배하기 위해 브라만이라는 종교와 카스트제도를 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석가가 깨달은 것이다. 석가모니가 브라만교가 섬기는 신이 가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 못했으며,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가 있음도 전혀 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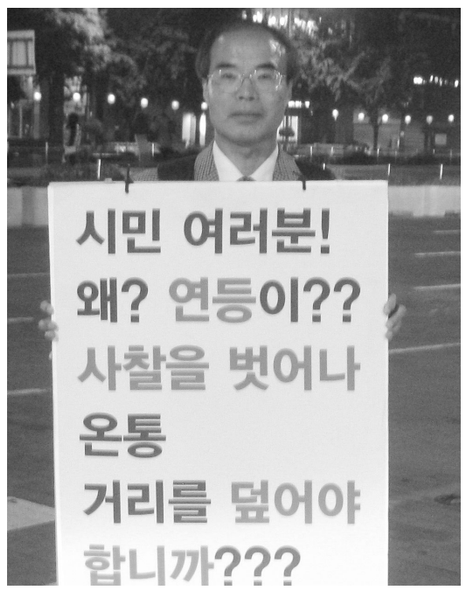
임요한목사 연등규제 1인 릴레이 시위 계속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자! 살리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계종의 1인 시위권 박탈에 대한 1인 시위도 병행

불교의 연등(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규제를 위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국민계몽과 여론조성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주(LORD)예수재단(대표 임요한 목사)이 주관하여, 1차로 5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사와 종로, 안국동,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等에서, 2차로 6월4일부터 상기 지역과 국회 앞 청와대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불교의 연등(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규제를 위한 위한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1차 조계사 等의 1인 릴레이 시위는 당초 5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주(LORD)예수재단이 주최하여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살리기 위하여, 제2회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결의대회(조계사 앞은 조계사측이 선점하여 조계사 건너편 템플스테이 앞에서 개최(종로경찰서 제2012-1040호 집회 허가됨/제1회는 5월5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개최함)와 병행하여 진행하려 했으나, 종로경찰서 당국이 불교의 석가탄일행사를 내세워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의 집회금지통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인 시위로 변경 진행되었다.

당초 개최하려 했던 제2회 행복한 대한민국 살리기 대회는, 종교적 관점이 아닌 법질서 확립를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대한민국 온거리를 무차별 뒤덮고 있는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인 연등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연등은 사찰을 벗어나지 않게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통제와 감독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을 역설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살리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우상과 미신, 무당문제, 거짓선지자/이단 사이비집단 규탄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주의자, 좌파세력 척결과 부패 종교지도자(최근 조계종 승려의 도박과 음주, 성매수 의혹등)규탄 음란퇴폐산업의 규제와 척결등... 가정파괴, 동성애문제..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언급과 입법촉구와 대안을 결의하기 위한 집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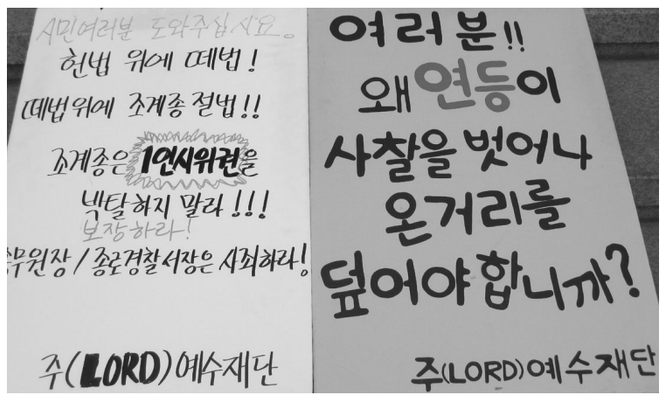
옥외광고물인 연등이 석가탄일을 내세워 연등축제라는 이름으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대한민국의 온거리를 뒤덮고 있는 현상은 중단되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규제되고 통제되고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종로구청 당국자의 확인에 의해서도..조계사에서 설치한 연등이 종로일대와 광화문 일대 안국동 일대 시청 일대 남대문까지, 수십킬로미터 이상 광범위하게 전기로 연결 야간에 점등되고 있으며, 수원의 대한불교조계종 청련암(연등에 연화유치원과 금강유치원 표기함)의 경우도 교육청 앞을 거쳐 우먼플러스병원.. 안경박사.. 장안구청까지 약 3~4킬로미터에 걸쳐 광범위하게 연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기로 야간에 점등하고 있어 전기안전과 교통신호에도 영향을 주는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주(LORD)예수재단은 조계사와 서울 종로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청련암과 수원장안구청장을 수원지검에 빠른 시일 내에 고발할 계획이다.

수원중부경찰서의 경우 경찰서 앞에 연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찰서의 법우회(회장이 경리계장이라고함 031-299-5222)에서 설치하였으며 경찰서의 전기를 끌어다가 연등을 점등하고 있음이 당직근무자 정순옥 행정관과 정문 근무자 임00의경에게 확인한 바 있어 수원중부경찰서장을 검찰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종로구청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안양 성결대학교 앞 명덕사의 경우는 연등을 사찰경내에 한정하여 설치하는 모범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 명덕사의 경우 해당구청의 행정지도와 성결대학교의 대응으로 사료됨.

특히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 1인 시위권이 조계종의 초법적인 만행과 경찰의 방조와 직무유기에 의하여 박탈되고 있음도 고발하는 1인 릴레이 시위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앞이나 청와대 앞에서도 자유로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조계사 블록에서만 특별한 구역(조계종 특구)이 되어 있음을 고발하며, 헌법 위에 떼법 있고, 떼법 위에 조계종 절법 있다, 조계종은 1인 시위권 박탈하지 말고, 보장하라!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로경찰서장은 사죄하라! 대한민국 정부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조계종의 만행과 횡포를 규탄하고자 한다.



주(LORD)예수재단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구국운동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하고 살리기 위하여 입법청원운동 토론회 세미나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계몽과 의식개혁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만간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살리기 위한(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주의자 좌파 척결/음란퇴폐산업 규제/ 이단사이비 척결/ 연등 규제 等의 입법추진) 100만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을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김민호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설립 29주년을 축하합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롬방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3층 아동센터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영어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 예 배 안 내 >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 요 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대한민국지키기 6.25 국민대회' 지도자대회 열어

9일 승동교회에서 청년 · 남성지도자대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설교



오는 24일(주일) 5만여 명이 동원되는 '대한민국지키기 6.25 국민대회'에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9일(토) 서울 인사동 승동교회(담임 박상훈 목사)에서 오전 11시 '한국기독교 청년지도자대회'와 오후 3시 '한국기독교 남성지도자대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두 차례 지도자대회에서 '수문광장의 축복(느 8:3-12)'을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홍 대표회장은 일제 압제와 6 · 25 전쟁의 끔찍한 참화를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가 최근 이념 대립, 도덕적 타락 등으로 인해 다시금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마저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종교다원주의 · 공산주의와 동성연애를 지지 · 옹호하는 WCC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며"이번 국민대회는 15개 보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대회" 라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두 차례 대회에서"우리가 많은 곳을 놔둔 채 이곳 승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가 민족의 산실이고, 기독교의 산 역사이며, 통일운동의 역사이고, 순교자의 피흘림이 있는 보수 신앙의 모체이기 때문"이라며"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순교자들의 피흘림 때문인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독교인들의 최대 무기인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역설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문둥병의 특징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으로, 고통이 없는 것이 때로는 평안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며"청년 여러분들께서 한국교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시청 앞 광장에 여러분 청년들이 왜 모여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지금 종북세력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운 이때에,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사말을 전한 박상훈 목사는"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도자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며 "여성지도자대회에 이어 청년 · 남성 지도자대회를 저희 승동교회에서 열게 돼 감사하다"고 했다. 이후에는 하태초 장로(공동회장)의 축사와 김용도 목사(공동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구호제창이 있었다.

청년지도자대회에서는 진택중 목사(부회장)가 기도, 조명재 목사(왕성교회 청년담당)가 성경봉독을, 남성지도자대회에서는 김영완 목사(개혁정통 총무)가 기도, 권기원 장로(경서교회 연합남선교회장)가 성경봉독을 각각 맡았다. 사회는 최명우 목사(강남순복음교회 당회장)가 했으며, 봉헌기도는 이병순 목사(공동회장), 광고는 박중선 목사(대내외협력위원장)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창립 40주년, 신월동성결교회 고용복 목사 원로추대

앞으로도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 · 뒷받침 잘하는 교회 되길

신월동성결교회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및 고용복 목사 원로목사 추대 고신원 목사 담임목사 위임 및 장로권사 임직식 창립 40주년을 맞은 신월동성결교회가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과 장로장립 등 임직식을 갖고 세대교체로 새로운 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회고와 전망" 제하의 설교를 전한 예성 총회장 김두성 목사(안양중앙교회)는 "전도자로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했던 사도바울처럼 성역 40주년을 맞기까지 달려온 고용복 목사의 목회 인생이 그러하다"면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출퇴근없이 소임감당에 최선을 다했고, 금과 은에 청백했으며, 사나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종으로서의 삶이 최고의 목표였던 목회 인생은 사도바울에 견줄만하다"고 언급하고, "일선 목회에서 은퇴하지만 앞으로도 이 사명 잘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뒷받침을 잘하는 교회가 되길 당부"했다.

계속해서 2부 장로, 권사 임직식과 3부 고신원 담임목사 위임식, 4부 고용복 원로목사 추대식 순으로 진행됐다.

신월동교회를 개척하여 40주년을 한결같이 헌신하며 달려온 고용복 목사는 예성부흥사회장과 총재를 역임했고, 21세기부흥선교협의회 회장 및 대표총재, 예성총회 산하 성결교신학교 이사, 양천구 교구협의회장, 예성 총회 선교부장 및 성결부흥운동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예성 국내선교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상임고으로 있으며, 국내외 부흥선교를 1700여회 인도했다.

가족으로는 이상순 사모와의 사이에 신월동성결교회 후임목사로 위임받은 고신원 목사를 비롯하여 2남 2녀가 있으며 자녀들 모두 목회자와 사모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부친의 뒤를 이어 신월동교회의 2대 담임목사가 된 고신원 목사는 성결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탈봇신학대학원 M.Div, 신월동성결교회 교육 및 시무전도사를 역임하고, 동교회 미국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사역을 감당한 바 있으며, 미국 놀웍한인교회 시무전도사, 미국 풍요로운교회 시무 전도사 및 부목사, 미국 남가주 휄로쉽교회 부목사, 미국 평안교회 교육목사, 미국 남가주 휄로쉽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고, 2009년 신월동성결교회 교회성장연구소장을 거쳐 담임목사로 위임받게 됐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짓밟히고 있다. 우리국민은 좌경세력, 종북세력을 뿌리뽑아야 국가가 살고 안정된다.

"전쟁하자는 거냐, 미국놈의 개야"

범민련 의장에 실형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난동, 보석 기각하자 "민족 반역자… 개×× 죽을 줄 알라" 방청석의 미전향 장기수도 재판부 향해 "미국 놈의 개다"

국내 대표적 종북(從北) 단체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간부가 8일 법정(法廷)에서 재판장에게 "개××, 너 죽을 줄 알라"며 욕설을 퍼붓고, 재판부를 향해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505호 법정에서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4) 의장과 이경원(46) 전 사무처장, 최은아(39) 선전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서 판사에게 "미국 놈의 개야"하고 달려들어 소란



이들은 2003년부터 일본과 중국에 있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과 관련한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작년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최씨는 집유)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은 검찰과 법원이 범민련 간부와 회원으로 추정하는 30여명 등 60여명이 방청석에 자리잡은 상황에서 열렸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 박삼봉 부장판사가 판결 주문(主文 · 선고 형량)을 먼저 선고한 뒤 이유를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방청석 '난동'이 시작됐다.

난동은 범민련 편집위원장인 최동진씨가 주도했다.

박삼봉 부장판사 "피고인 이규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4년, 피고인 이경원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하자…"방청석에서 크게 얘기합시다 하자, 법원 경위는 조용히 하세요, 최동진은 (재판부에 삿대질을 하면서) 실형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유예라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판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얘기해봅시다 하자, 경위가(제지하며) 나가 주세요 하고 법원 실무관과 여성인 법원 경위가 최씨를 붙잡아 끌어내려 하자 최씨는 "지금 어디다 손을 대고 그래? 그걸 지금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방청석에서도"그 손 떼"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최동진은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평화를 하자는 거예요. 이 법정이 진실과 정의와 평화를 원하는 법정이요, 아니면 대결과 전쟁을 원하는 법정이요? 국가보안법, 그 구닥다리 법을 갖다가 여기 와 가지고 통일 애국 인사들한테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는 거요? 하자, 박 부장판사는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 최동진은 조용할 테니까 집행유예야, 실형이야 지금 한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법원 경위가 '나가달라' 고 다시 제지하자 최씨는"가만히 있겠다"며 일단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가 선고 말미에 이씨 등의 보석을 기각하자 최씨의 폭언과 난동이 다시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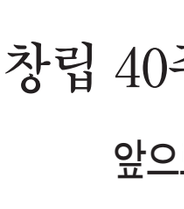
이날 최동진은 참 그러니까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고. 어떻게 사고방식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당신 아들딸들한테…. 당신이 진짜 인간이요? 당신은 법관이 아니라 민족 반역자요라면서 흥분한 최씨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재판부가 앉아 있는 법대(法臺) 쪽으로 돌진했다.

최동진은 이 개XX야, X새끼야. (법원 경위 3명이 법대로 가는 최 씨를 막아서자 더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MB 이 X새끼 정권 아래서… (변호인이 말리며 법정 밖으로 끌고나가자) 재판장 X새끼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놈의 개야하고 최씨가 욕설을 퍼붓는 동안 방청객 일부는"국가보안법 철폐"를 계속해서 외쳤다. 방청객 가운데는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7년을 복역하다 출소했지만 지난 2001년 "강압적인 전향은 무효"라고 선언한 장기수 김영식(79)씨도 있었다. 그는 1959년 북한에서 간첩 안내원으로 선발돼 밀봉교육(간첩에게 하는 집중교육)을 받고 동해안으로 침투한 인물이다. 그도 재판부를 향해 "미국 놈의 개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목격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범민련 간부와 회원들을 법정모욕죄로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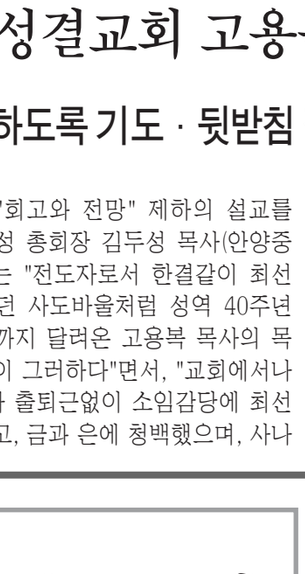
한편 임수경씨, 이석기씨 등 수십만의 극좌파 종북세력이 국회와 각 언론사, 학교, 기업체, 기관 등에 침투해 활약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좌파가 없는 세상, 종북세력이 없는 안정된 국가가로 바로 세워져나가기 위하여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GIROUN CHURCH a
표어 :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 정일량 목사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09:30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8:00
영 락 원 예 배	오후 3:00	영 락 원 예 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치유예배	오후 8:00
청소년부예배	오전 9: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00
주일학교예배	오전11:00	중보기도모임	월 오후 10:00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향기로운빌딩 9층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목포만나교회
웨스트민스터 목포신학교
201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모상련 박사 연구원장



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 학장

1. 모집과정

과정	구분	수업연한	전형자격	비고
연구원	목하신학석사(M.Div)	3년	4년제 대학교나신학과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신학4년 이수자는 2학년에 편입	주간:계절학기(여름,겨울) 야간:월,화,목,금
	목회학석사(MA)	2년	4년제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자	
신학원	신학사(B.Th)	4년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여교역자(B.D.M)	3년	고졸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평신교교육과	2년	학력제한 없음. 졸업 후 신학과 입학자격 부여. 고졸자인 경우는 신학과2학년에 편입	
	사회복지과	2년	고졸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

2. 전형일정
원서접수 : 연중 계속
원서교부 : 본교 교무과 061)242-16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사진 4매

4. 특전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2) 신학과 졸업생은 연구원 과정에 진학
3) 사회복지과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케어복지사(민간) 자격 취득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 모상련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42-16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순천시 동외동 191-2번지 / 전화 061)744-7004, H.P 010-9049-3731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1
핸드폰 : 011-631-1977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담임목사 오상렬
(본지 상임이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설 교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 ⑧

제5부 보배로운 피①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벧전 1:18~19)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까지 다섯째 단계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소망을 가지게 된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배가 되게 하는 연단과 시련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베드로는 순교할 신앙에 올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과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피'는 베드로전서 1~5장에서 베드로 사도에 의해 증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보배이신 재림하실 예수님을 안에 품고 있으며 그를 증거하다가 그와 같이 피 흘려 순교하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경우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석그릇으로 세워 사용하실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게 하신 후에 시련을 통해 다듬으셔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순교할 자로 확정이 되면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십니다.

보배로운 피로의 구속, 그 세 가지 의미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임 받는 베드로에게 임하게 될 다음 단계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와 같이 피를 흘리는 단계가 베드로에게 예비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18~19절에서 '너희가 너희의 허망한 행실(죄의 몸)에서 은이나 금(세상의 보석)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허망한 행실과 허물과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같이 사는 영원한 생명(조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쓰실 보석으로 되게 하시는 과정에서 보배로운 피의 세 가지 구속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죄에서 구속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심을 뜻합니다. 둘째,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즉 요나의 아들 시몬을 견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뜻합니다. 셋째, 베드로를 포함하여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존재는 형편없는데 피 흘렸다는 사실 자체로써 죄를 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이시므로, 그분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흰 옷을 입히시는 것까지를 포함한 구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석이신 예수는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흰 옷을 입히시는 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흰 옷 입은 큰 무리

마태복음 24장21절 이하의 말씀대로 7년 환란 중 전3년 반은 성도들에게 큰 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9절에 흰 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아와 찬양하는데, 이들은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로 어린양의 피로 씻어서 희어진 옷을 입게(계 7:14) 된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6장9~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 당한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년 환란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계 13:1) 자신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 보석그릇으로 일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치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여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순교 당하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되고, 순교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보석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결국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 날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통치(계 20:4)하게 됩니다.

어린양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은 어린양과 같이 제물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석그릇이 된 자들도 7년 환란 중 전3년 반 동안 철장권세를 가지고 쓰임 받다가 어린양 예수를 좇아 순교의 제물이 되어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 사함 받아 흰옷을 입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 환란 날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 결국 순교를 통해 어린양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간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에 환란이 끝난 후 신랑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왕관을 쓰고 흰말을 타고 내려오실 때,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어린양의 신부들을 위해서 흰 세마포 옷이 예비되는데 이 흰 옷은 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계 6:11)입니다.

환란이 임박한 이때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일할 때가 가까웠고, 그리스도인들에게 Exodus할 때가 가까웠으며, 적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싸워 이겨 흰 옷을 입게 될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피 흘릴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벧후 1:14~15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 주신 것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앎이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어 흰 옷을 입혀주실 때입니다. 또한 Exodus하여 예수께서 보석으로 앉아 계신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지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Exodus한 후에라도 이미 증거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도 순교를 기쁘게 맞기를 당부합니다. '순교의 죽음은 괴롭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로 옮겨가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다음호에 계속〉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예수님의 최후 10일간의 행적 부활 그 이후 ⑤

유월절의 날자와 예비일

1. 無酵節의 첫날(⇒유월절)

* 마26:17;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 막14:12; 무교절의 첫날 곧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양을 잡는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가서 예비하려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 눅22:7; 그 때에 반드시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야하는 무교절날이 이르매

2. 豫備日(⇒유월절)

* 막15:42,43;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니 *요19:14;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여섯시쯤이라. * 요19:42;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그 돌무덤이 가까우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라.

유월절(무교절의 첫날, 예비일), 1월14일(수) 13일 일몰 후, 14일 일몰 전 사흘 밤 사흘 낮, 삼일 후 죽으시고, 무교절(절기안식일), 1월15일(목) 14일 일몰 후, 15일 일몰 전, 밤① 낮① 하루(일일), 무덤에 장사, 1월16일 일몰 전, 밤② 낮② 이틀(이일), 첫째 날, 토요일(계명의 안식일) 1월17일(토), 16일 일몰 후, 밤③, 17일 일몰 전, 낮③ 사흘(삼일), 둘째 날, 초실절 1월18일(주일) 17일 일몰 후, 부활하심, 18일 일몰 전, 새벽에 나타나심.

셋째 날, 위의 성경구절을 살펴보았을 때 어린양을 잡아 유월절의 만찬 곧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날은 유월절 날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의 날자로 13일 저녁 일몰 후에 행하여졌고, 예수님의 장사지냄은 유월절 날이 끝나기 전에 유대인들의 날자로 14일 저녁 일몰 전 무교절이 시작 되기 전(前)에 행하여졌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주의 첫날에 일찍 부활 하신 후(막16:9)12시간의 공백의 시간이 지난후인 새벽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개역성경에는 아침이라는 단어를 첨가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새벽인 것으로 오역이 되었다.

안식일 *막16:1; 또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향품들을 샀다 이는 저희가 가서 그분께 바르기 위함이었다.(KGE바이블) *눅23:56하; 이에 저희가 돌아가서 향품들과 향유들을 예비하였다 또 저희가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었다. 막16:1; 절기의 안식일이 지난 후 -향품들을 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가 돋을 때에 돌무덤에 가며 눅23:56하; 그 후에 돌아가서 -향품들과 향유들을 예비한 후 -계명을좇아 안식일에 쉼

막16:1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무교절 안식일이고, 눅23:56하의 안식일은 토요일 계명의 안식일 날이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주간에는 안식일이 두 번 있었다. 절기의 안식일인 무교절이 지난 후에 향품과 기름을 금요일 날 사가지고 온후에는 계명의 안식일이 되므로 안식일을 지내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셨다.

3.예수님의 최후10일간의 행적 4복음서 대조

1. 사건/ 유월절 아빕(니산)월 1월14일 화요일(13일 화요일 일몰 후 ~ 14일 일몰 전) 열두제자와 함께 오심 13일 저녁, 예루살렘(막14:17, 마26:20, 눅22:14, 요13:1), 최후의 만찬(막14:18, 마 26:21~29, 막 14:18-25, 눅22:15~20, 요13:1~30),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요13:2, 요13:2~17), 유다의 배반을 예고(막14:18, 마26:21:25, 막14:18~21, 눅22:21~23, 요13:18~30, 시41:9), 새 계명을 주심(요13:34, 요13:31~34), 주의 만찬의 규례를 주심(막14:22, 마26:26~29, 막14:22~25, 눅22:19~20, 고전11:23),

베드로 세 번 부인 할 것을 예고(요13:38, 마26:31~35, 막14:27~31, 눅22: 28~38, 요13:35~38, 슥13:7), 제자들을 위한 위로(요14:1,요14:1~31, 시35:

19), 포도나무 비유(요15:1~11), 성령에 대하여(요16:1~33), 전 우주적인 중보기도(요17:1~26), 겟세마네의 기도 13일 밤, 감람산(막14:32, 마26:36~

46, 막14:32~42, 눅22:39~46, 요18:1, 시42:6), 주님께서 잡히심(막14:46, 마26:47~57, 막14:43~52, 눅22:47~53, 요18:1~12), 안나스의 예비심문(요18:13, 요18:13~14),

산헤드린 공회 비공식 재판(요18:24, 마26:57~68, 막14:53~65, 요18:24, 레24:16), 베드로가 3번째 예수를 부인(요18:27, 마26:69~75, 막14:54~72, 눅22:54~62, 요18:15~27), 산헤드린공회 공식 재판 14일 저녁,(요18:28, 마27:1, 막15:1, 눅22:66~71, 요18:29, 시110:1), 이스카리윳 유다 자살(마27:3~10, 행1:18,19),

빌라도의 1차 심문 재판정,(마27:11~14, 막15:1~5,눅23:1~7, 요18:29~32), 헤롯 안티파스의 심문(눅23:8~12), 빌라도의 2차 심문(재판정),(마27:11, 마27:15~26, 막15:6~15, 눅23:13~25, 요18:33~40, 시21:6~9), 바라바 요구(마27:15, 막15:5~15, 눅23:19, 요18:39~40), 빌라도의 채찍질(요19:1, 마27:26, 막15:15, 눅23:22, 요19:1), 병사들 가시관을 씌움, 자주색옷(마27:

27~30, 막15:16~19, 요19:2), 빌라도 JX의 죄를 부인(마27:19~25, 눅23:13~22, 요19:4),

•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곳 = 큰 다락방(large upper room),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곳, 다락방(an upper room),

• 사건과 날자 장소 성경, 비고 등을 통해 나열한다면

유대인들 JX를 정죄, 예루살렘(마27:43, 요19:7~15), JX를 처형토록 넘겨줌(14일 오전6시, 갑바다(마27:26, 막15:15~19, 눅23:25, 요19:16), 구레네 시몬 대신 십자가 기고 감(막15:20,21, 요19:16), JX께서 골고다에 도착(막15:22, 마27:32, 막15:21, 눅23:26), 몰약탄 포도주 마시지 않으심(막15:23 막15:22, 눅23:33, 요19:13~24) JX를 십자가에 못 박힘(제3시"오전9시")(막15:25, 마27:34), JX의 옷들을 4몫으로 나누어 한몫씩(요19:23,막15:25)

JX의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음(요19:24, 마27:35, 막15:24~26, 요19:23,24 시22:18), 죄명을 쓴 명패(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막15:26, 마27:38, 막15:26, 눅23:38, 요19:19),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두 강도 함께 못 박힘(막15:27, 눅23:33, 요19:18), 가상칠언(架上七言), 제4시(눅23:34, 눅23:34), 용서의 십자가

지나가는 자들 예수님을 후욕(막15:29, 마27:39,40, 막15:29), 대성직자들과 서기관들 희롱(막15:31, 눅23:35), 군병들 희롱, 신포도주 드림(눅23:36 눅23:36), 달린 행악 자(눅23:39, 눅23:39~43), 가상칠언(架上七言)두 번째 제5시경(눅23:43), 소망의 십자가, 가상칠언(架上七言)세 번째(요19:26,27)효도의 십자가, 온 땅이 어두워짐 제6시(정오)(막15:33, 마27:45, 눅23:44)

〈다음호에 계속〉



김수정 원장
성경연구원
jtntv방송신문
운영이사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희망원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MTR-school 성경 연구원
구약(벤아세르 MT)과 신약(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

● 계시록원전
● 히브리어문법
● 헬라어문법(전 준덕 교수)
알기 쉬운 52주 헬라어 문법 저자 강의
● 영어문법
● 계시록



원장 김수정
(jtntv방송신문 운영이사)

● 일시: 매주 (화) 오전 9시부터 강의
● 장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산 1번지
● 문의: 031-767-7651, 010-7520-7651
● 후원: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특별세미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할인

♣ 참석자 전원에게 「언약의 무리」 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겸용)

제4회 목회자부부 초청 말씀블레싱 (구약편)

'목회자 부부 다음세대에 무엇을 줄 것인가 눈물로 기도'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주님을 섬기듯 목회자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냉수한그릇선교회(대표회장 박삼수 목사)는 제4회 목회자부부 초청 세미나가 2012년 6월12일(화)부터 6월14일(목)까지 충주 켄싱턴리조트에서 300여 명의 목회자 부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미나의 강의를 맡은 주강사 이애실 사모(생터 성경사역원 대표)의 열정적인 강의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사, 사모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줄것이냐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외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그릇에 풍성하게 채우는 시간이었다. 2박3일 동안 주 강사 이애실 사모와 서울 전문 강사팀들의 강의를 들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승부를 걸면서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목 되어지는 목회 현장을 새롭게 다듬어 가기를 소망하며, 보다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잠자고 있는 교인들의 영혼을 깨우는 목회자가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행복한 모습이었다. 하루에 10시간 강의를 들으면서도 전혀 흐트러짐 없이 말씀에 올인하며 진리로 승부하려는 목사와 사모들의 영적인 열정의 현장을 바라본 기자는 한국 교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생터 성경사역원과 냉수한그릇선교회가 1년에 한 차례 가지는 행사로서 1회성 물질로 섬기는 것과 병행하여 목회사역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역 하도록 동역하는 세미나이기에 일평생 가장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대표회장 박삼수 목사는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힘든 목회 현장에서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냉수한그릇선교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목회자들과 사모들을 바라보며 너무 감동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주님을 섬기듯 목회자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온전히 섬기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냉수한그릇선교회의 취지?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뜨거운 사명감으로 교회개척을 출발했지만 순탄치 못할 뿐 아니라 목회를 잘하고 있던 목회자도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들을 본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요 어느 목회자든지 이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속수무책이며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갈등한다.

목회자로 기름 부어 세워지기까지 숱한 세월을 연단 받고 깎이어 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 하다가 목회현장에서 원치 않게 물러나게 되어 많은 고통을 당하는 목회자들은 지쳐 있으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 어떤 목회자는 목회자이기에 겪어야했던 엄청난 상처를 안고 아예 목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현실의 어려움은 가족들의 생활대책도 없으며, 당장 거처할 처소 문제뿐 아니라 자녀 학자금도 없고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조차도 없어 굶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누군가가 이 분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그냥 방치 한다는 것은 죄악이며 한국교회의 엄청난 손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이다. 로뎀나무 아래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셨듯이, 임지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는 목회자들과,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 목회 중 장애와 병환의 고통을 당하는 목회자들, 은퇴 후 노후 대책이 없어서 오갈 때 없는 은퇴목회자들, 목회사역 중 갑자기 소천하여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며 고통당하는 목회자 유가족들을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야 한다.

나눔과 섬김으로 세우는 이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며 가장 시급한 일이기에 1999년 8월 26일 7명의 목회자가 발기인 모임을 가지게 되고 동년 9월6일 13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뜨거운 가슴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주님께서 귀하게 교훈 하셨던 '냉수 한 그릇' 의 진리를 좇아 순수한 복음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냉수 한 그릇' 선교회는 시작된 것이다.

박수영 기자(대구지사장)

웃고 삽시다



언제나 웃음을 잃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맑고 밝게 웃으세요. 웃으면서 살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이랍니다.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웃으세요. 웃음은 전염성을 가졌답니다. 웃음은 마음의 문을 열게한답니다. 잠을 자면서도 웃으세요.

꿈속에서도 웃음을 기억하세요. 항상 환화게 웃는 모습을 상상 하세요. 웃음을 취미로 만드세요. 웃음이 특기가 되게 하세요. 웃음을 습관화 하세요. 웃는 얼굴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답니다. 웃는 사람은 행복하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웃으세요. 웃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웃는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모인답니다. 웃음은 마음을 포로로 만든답니다. 웃음은 삶의 질을 변화시킨답니다. 웃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여유를 선사한답니다. 웃다보면 인격이 달라진답니다. 웃음이 운명의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웃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티없이 어린아이처럼 웃으세요. 모든이에게 웃음을 주세요. 웃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주세요. 웃음의 노래를 부르세요. 웃음의 시를 쓰세요. 웃음의 소설을 쓰세요. 웃는 마음, 웃는 얼굴, 웃는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재건동부노회 승천절 연합예배 드려

한손엔 복음, 다른 한손엔 빵 정신으로 오늘에 이르러

예장 재건총회 동부노회(노회장 정성헌 목사)는 지난 6월 6일 수요일 경북 경주시 신평동에 소재한 '무궁화 동산'에서 "승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박수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김성준 장로의 대표기도, 정성헌 목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9절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복된 말씀을 증거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어 축구, 줄다리기, 릴레이 등 체육 행사와 함께 시상 1등, 2등, 3등, 기념품과 여러가지 경품 추첨,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참석은 못했지만 이번 노회 행사를 통하여 노회원들 간의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에 일조했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행사를 마감했다.

재건교회의 그 역사의 시작은 일제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한국의 식민지화-내선일치 정책에서 가장 걸림돌인 한국교회의 말살을 위해서 회유와 강압등의 정책을 펼쳐 나왔다. 특히 강압정책으로는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을 들수 있다. 신사참배는 1936년부터 해방직전까지 강요된 정책으로 한국교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제의 탄압이 그 수위를 더해 갈수록 순교자가 나오는 반면에, 또한 배교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해방 전에는 장로교파도, 감리교파도, 성결교파도 하나였다.

카톨릭이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공식으로 승인하였고, 그 이후 여러 개신교 교파들이 차례로 굴복을 해 나갔으나, 조선예수교장로회는 끝까지 반대투쟁을 벌여 나갔다.

그러나 1938년 9월9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일본순경97명의 삼엄한 감시하에 개최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차총회(총대27개 노회, 총대:목사219명, 장로89명, 선교사35명 중 4명 결석 219명 참석)는 한국장로교회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오점을 남겼다.

아등(我等)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본의(本意)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고,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추(追)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銃後)황국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하기로 기함"(제27차 총회회의록) 장로교회가 공적으로 일본 우상 앞에 굴종하자 전국의 소수의 신실한 무리들은 순교각오하고 신사참배반대운동에 나서게 되었고, 그들은 잡혀가서 혹독한 고문과 매질을 당했고, 순교자가 나오고, 더러는 환란을 피해 산중으로 피신을 하기도 했다.



그런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재건교회가 이 땅에 태동케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사42:8)이란 표어 하에, '여호와께만 충성하자. 철두철미 회개하자. 깨끗한 성전을 지어바치자' 3대 주의를 붙들고, 일본의 우상 앞에 우상숭배 죄악으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재건하자는 취지하에서 재건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다.

재건교회의 교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다.

그 이후 재건교회는 한국교회의 재건과 갱신을 위하여, '순교신앙, 경건신앙, 그리고 한손엔 복음 / 다른 한손엔 빵' 정신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도에서 지나친 율법주의, 정죄주의, 편협한 교단적 성향으로 인하여 교회사적으로 부정적인 비평과 오해를 받았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멜산상의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일본의 우상앞에 순교를각오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의 선진들로 구성된 교회이고, 칠흙같은 어둠의 시대에 한국교회에 소망을 준 교회라는 사실이다.

대구지사장 박수영 기자







새에덴교회, 6회째 참전용사 보은행사 갖는다

미국 및 필리핀 참전용사와 가족 50여명 초청, 이달 22일(금) 방한



경기도 용인시 새에덴교회(담임목사 소강석)는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를 가진다. 민간외교 차원 최초로 시작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훈훈한 미담과 감동을 주고 있는 새에덴교회의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는 2007년부터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6회째 열리게 된다.

특별히 금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참전용사들과 가족 등, 총 50 여명을 초청하여 필리핀군 참전기념비와 국립현충원, 판문점과 전쟁기념관, 서울타워와 삼성전자, 한미연합사와 평택2함대 방문 등 6박 7일간 다양한 일정과 보은행사를 가지게 되어 그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새에덴교회의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와는 달리 항공비와 체제비 등 전액 지원을 고수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참전용사와 가족들과 전쟁 전후 아픔과 감동의 사연이 있는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초청하고 있어 이들 가운데는 참전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주관하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담임목사는 "벌써 6회를 맞이하여 감회가 새롭다며, 그동안 물심양면의 헌신을 함께 해온 성도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제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는 새에덴교회의 자랑스러운 對 사회적 · 국제적 섬김과 나눔의 행사로 자리 잡아 1석 3조의 값진 열매를 맺고 있다"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지켜낸 이 땅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확고한 역사교육과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은할 줄 아는 개인과 교회와 국민들이 되길 소원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새에덴교회의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는 많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다. 2010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참전용사는 60년 전 자신의 강력한 권유로 친구 3명과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는데, 그 친구들은 안타깝게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자신만 살아 미국 고향에 돌아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새에덴교회의 초청으로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감사와 우정을 확인하였고, 자신과 친구들이 생명을 바쳐 지켜낸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그간의 무거웠던 마음을 풀고 갈 수 있었다고 눈물 흘리며 고마워하였으며, 2011년에 초청된 3대 참전용사 가족은 할아버지가 참전하여 지켜낸 한국의 모습과 할아버지를 생명의 은인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으로 보고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벗어버리고, 한국을 진정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금번 보은행사의 첫 일정으로 22일(금) 10시30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의 『필리핀군 참전기념비』에서 헌화행사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쟁 필리핀 참전용사 및 가족들을 비롯해 새에덴교회 소강석 담임목사와 루이스 T 크루즈 주한 필리핀대사, 한국군 전우 회원, 30사단 군악대가 순서를 맞으며, 특별히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이주민 출신 첫 국회의원이 된 이자스민 의원도 초청되어 순서를 맡을 예정이다.

나라사랑에 앞장서는 교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에덴교회는 앞으로도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를 계속할 것이다. 내년에는 6.25전쟁 참전 21개국 가운데 향후 아시아권에서 필리핀과 태국, 아프리카권에서 에티오피아와 남아공 등 참전용사들도 초청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전할 계획이다.

이단 사이비 상담실 개소식 감사예배 드려

"이단 사역은 상담과 예방을 넘어 공격적으로 사역해야"

부산성시화, 이단 · 사이비와의 전쟁 선포 후 상담실 개소

신천지 등 감시 및 예방 강화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정필도 목사 · 본부장 최홍준 목사)는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이단 · 사이비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단 · 사이비상담실(실장 권남궤 전도사. 前 신천지교회 담임 및 본부강사)을 개소, 감사예배를 드렸다.

6월 5일 오전 11시 감사예배에서 최홍준 목사는 "교회는 시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는 양육을 통해 세상으로 다시 파송해야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타도시로 가서 상담 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웠는데 부산성시화본부가 이단 · 사이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부산에서도 제대로 된 이단상담과 예방을 넘어 공격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상담실을 개소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권남궤 전도사는 "신천지는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교회 생활에서 지쳐 영적으로 병든 자가 그들의 주 타켓"이라고 경고하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족 누구든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부산성시화운동본부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 사이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단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하며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이단 · 사이비 예방홍보카드 10만장과 포스터 5천장을 제작, 각 교회로 배포했으며 부산극동방송과 부산CBS방송 등을 통해 이단 · 사이비 예방활동을 펼쳤다.

또한 목회자 및 개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45회의 회심상담과 12회의 예방세미나를 통해 10명이 회심하기도 했다.

이날 개소한 이단 · 사이비 상담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상담과 예방세미나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문의)010-5858-1152



여수세계박람회 통일교 관련

기독교인 이용 말자!

여수세계박람회는 정부가 국제박람회기구(BIE)로부터 지난 2007년 유치해 국비 2조원 이상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국가행사인데 통일교가 주관하는 행사라는 각종 루머가 난무하여 실제로는 어떤 관련 기업도 민자 형태조차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교와 전혀 관계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통일교가 현재 여수세계박람회 주위인 여수에서 통일교가 직접 운영하는 여수디오션리조트 시설물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여수디오션리조트 개발 사업자인 일상해양산업(주)는 통일교 산하 통일그룹에서 운영하며, 여수디오션리조트(대표이사 정창주)의 경영은 현재 통일교기업체인 용평리조트가 맡고 있다. 통일교 산하 통일그룹에서 운영하는 여수디오션리조트는 '여수디오션' 콘도와 워터파크를 2008년 7월 23일에 개장하였고, 디오션호텔은 '2012여수엑스포' 맞춰서 2012년 2월 28일에 개장하였으며, 골프장인 디오션컨트리클럽은 2012년 5월 25일에 개장하였다고 통일교 측이 밝혔다.

통일교 산하 통일그룹에는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에 참여한 '충화정 천정1호' 크루즈급 요트를 여수 소호 요트경기장에서 2011년 2월 17일에 운행시작하였으며, 통일교기업체인 오션호프해운(주)에서 여수항과 거문도를 왕복하는 '줄리아 아쿠아호' 수송용 초쾌속선을 2009년 8월26일에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2012년 4월 24일에 여수항을 떠나 거문도로 향하던 '줄리아 아쿠아호' 여객선이 운항 부주의로 고흥 제2 나로교의 교량의 교각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충돌하여 선체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었으며 승객 104명 가운데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통일교는 거문도에 '거문도 해양 천정궁 호텔'을 2011년 9월 12일에 개관식을 하였으나 아직 영업허가를 받지못했고, 거문도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교회는 통일교의 포교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단 사이비 중 가장 많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 기관기업체 및 시설물을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은 다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여 통일교 궤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는 교묘하게 기독교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침투하면서 한국교회 대다수의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은 그 배후에 통일교가 운영하는 기업이나 건물인지도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 척결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 내부를 단속하는 일이 우선 이기에 앞으로 각 교회가 통일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통대협에서 제공 하는 자료를 크게 복사해서 교회 게시판에 부착하여 기독교 성도들이 모르고 통일교 시설물을 이용하여 이단 사이비를 돕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대협은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 관련 기업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교회주보에 게재하여 기독교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한국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이 통일교 문선명 집단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 뿌리뽑는 운동을 하여 통일교척결에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라며"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여수에서 운영되는 크루즈요트 '충화정 천정1호', 오션호프해운(주) 운영하는 여수와 거문도 왕복 수송용 초쾌속선 '줄리아 아쿠아호', 여수디오션리조트 시설인 콘도, 워터파크, 호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목사는 이어서"통일교의 활동을 단합하여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이 여수의 통일교 시설물을 모르고 이용하여 이단 사이비 단체를 돕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선 목사
통대협 사무총장

지저스타임즈

2012 제4차 이사회는 강원도 양양 하조대소풍에서
지저스타임즈 신문사 및 인터넷 JTNTV방송은 오는
7월 19일(목)~20일(금)1박 2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46번지 하조대소풍에서
2012 제4차 이사회 및 기도회를 가집니다.

전국 21개 지사장 및 이사님들을 모시고 하계 수양회를 및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부부동반 가족과 함께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객실 예약 문제로 반드시 6월 30일까지 신문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서선교를 위한 본사 발전기금 및 찬조금 하실분!
농협 /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자세한 것은 아래
본사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경찰회관 1층,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574-10(대운빌라 2층 202호)
☎032-672-3031, 070-8230-0034, 직통/010-5468-6574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2)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창세기 43장11절-15절 찬송가 461장

본문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야곱은 가장 귀중한 아들 베냐민까지도 잃을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양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자식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족장으로 집안에 대한 영적 육적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집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의 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단호하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성경: 창세기 43장16절-34절 찬송가 415장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보고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축제를 준비하라고 청지기에 지시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자기 고향 집의 형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그때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특권이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고 동생을 팔았다는 죄의식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 했습니다. 이처럼 죄속에 거하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힘

성경: 창세기 44장1절-10절 찬송가 429장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매하게 "악으로 선을 갚는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종종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며 은밀한 중에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진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경: 창세기 44장11절-17절 찬송가 394장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여 몹시 놀라며 슬퍼하였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자신의 극한 슬픔과 절망감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절망적인 비통함에 사로잡힌 것은 그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에게 베냐민을 살리는 대신 모두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뜨거운 사랑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네 이웃들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5. 회개의 합당한 열매

성경: 창세기 44장18절-34절 찬송가 336장

본문을 보면 유다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다는 유다의 고백은 과거 그들이 지은 죄를 숨기기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 용서와 관용

성경: 창세기 45장1절-8절 찬송가 328장

본문을 보면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애굽의 권력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렵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행한 자신들의 죄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용서와 관용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때 비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은 이웃을 향하여 용서와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7. 이것이 용서입니다.

성경: 창세기 45장9절-24절 찬송가 467장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애굽땅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하였습니다. 온전한 용서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다시 들추어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네 이웃을 용서하였다면 그 이웃에 대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원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8.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성경: 창세기 45장25절-28절 찬송가 220장

본문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 중에 성도들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 볼 때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며 참된 신앙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경: 창세기 46장1절-27절 찬송가33장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명단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이루어지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의 몸에서 난 자가 칠십명이었다고 그 숫자가 기록 되고 있습니다. 후사 문제로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서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때로 서서히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경: 창세기 46장28절-34절 찬송가342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목축에 적합한 고센 땅에서 거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의 국경지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에 매우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그들의 생업의 편리함과 출애굽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지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진실한 모습으로

성경: 창세기 47장1절-12절 찬송가400장

본문을 보면 애굽에 도착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소개로 바로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를 만난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의 물음에 자신들의 직업이 목자인 것을 밝혔습니다. 애굽인은 목자라는 직업을 멸시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사실에 굴복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처럼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정

성경: 창세기 47장13절-31절 찬송가446장

본문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불러 유언하며 임종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애굽땅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 선조들이 묻힌 곳에 묻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의 관심은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는 삶을 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

성경: 창세기 48장1절-7절 찬송가133장

본문을 보면 야곱은 마지막 병상에서 아들 요셉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내용을 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케하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부귀 영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임을 요셉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복의 근원

성경: 창세기 48장8절-16절 찬송가468장

본문을 보면 야곱이 행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 기도 중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야곱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여긴 것입니다. 조부와 아버지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직도 변치않고 유효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가르침은 소멸되지 않는 인생의 귀한 자산"

한 소년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합니까" 그때 목사님은 소년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하루 24시간 중 한 시간만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소년은 대답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겨우 한 시간인데요" 목사님이 소년에게 설명했다.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성경을 묵상하게.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하게. 그러면 자네의 인생에 밝은 빛이 보일 걸세"

소년은 그때부터 이 교훈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는 과연 전세계를 누비는 인물이 됐다. 이 사람이 바로 빌리선데이. 세계적인 부흥사의 이름이다. 청소년기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좋은 가르침은 소멸되지 않는 인생의 귀한 자산이다.



담임 정연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정규예배

주일 전통예배(1부)	오전 9시 (래인보우 아트홀)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색동홀)
주일 현대예배(2부)	오전 11시(래인보우 비전홀)	아동부 예배	주일 오전 11:00(교육관)
주일 청년예배	오후 2시(래인보우 아트홀)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래인보우 아트홀)
주일 오후예배	오후 3시(래인보우 비전홀)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래인보우 아트홀)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9:00(래인보우 비전홀)
수요기도회 1부	매주 수요일 오전 10:30(래인보우 아트홀)	새가족모임(4주간)	주일 오전 9:30(새가족실)
수요기도회 2부	매주 수요일 오후 7:30(래인보우 아트홀)	경로교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래인보우 아트홀)

오시는길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시96:6~9)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	매일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드려질 수 있음
주일 5부 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철야기도회
각 구역별 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 구역별 교우 가정	매월 마지막 주는 연합예배

교회학교 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 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 이상 미혼



당회장 엄영수 목사
(대기협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대표전화 : 031)384-7408 부목사실 : 384-9744, 385-8933

대한기독사진가협회,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해 헌신 다짐



엄영수 목사





대한기독사진가협회(이하-대기협) 회장 엄영수 목사(대광교회 담임 목사)는 2009년에 발족된 대기협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으면서 선교사역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회장 엄영수 목사는 사진을 통한 소신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현대사회는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오디오 시대를 지나 비디오 시대가 왔는가 했는데, 이젠 온통 3D영상물로 넘쳐난다. 전화도 가정마다 유선전화가 사용화 되더니 이젠 초등학생부터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고 일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이 불과 1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도 피아노와 오르간 그리고 목사님의 음성만으로 인도되던 예배가 입체화되고 멀티미디어가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등 예배도 갑자기 변하고 있다. 교회마다 최고급 프로젝터가 설치되고 예배당 전면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부착되는 것은 필수적이 되었다.

그러나 막상 활용되는 것을 보면 필요한 콘텐츠의 빈곤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막상 활용하는 것은 찬송을 부를 때 악보나 가사를 보여주는 정도로 만족하는 교회들이 많다. 예배의 진행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될 때, 적당한 이미지나 영상물이 사용될 수 있다면 예배의 감동을 크게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단체들에 비해 교회의 프로그램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빈약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담당교역자나 교사들의 입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시청각자료들도 옛날에 비해 그리 발전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아무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할 수도 없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수많은 이미지들도 무단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작권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전국에 크리스천 사진작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대한기독사진가협회"이다. 이전에도 유사한 기독사진가들의 모임이 있었지만 좀 더 선교 적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기도하면서 새롭게 2009년에 출범한 본 협회에서는 먼저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진작가들이 신앙적 안목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이미지들을 함께 공유함으로 한국교회나 선교지에서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요즘 어디를 가 봐도 디지털 카메라 한 대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카메라가 보급 되었는데, 막상 사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이들은 많이 않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에서는 이러한 크리스천 사진가들의 모임을 통해서 사진에 대한 안목과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포토아카데미, 사진공모전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필요할 경우 전문사진작가들을 파송하여 질 좋은 사진을 촬영해 주고 있다. 각종 행사,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필요한 경우는 크리스천 가정의 경우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경조사의 사진까지도 촬영해 주고 있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는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와 교육을 통해서 실력이 갖추어지면 전문사진작가로 활동 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기독사진작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있다. 하나님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http://www.christianphoto.co.kr

기도와 열정으로 세계 최정상 발레단 입성

한우리교회 박세은 양 파리오페라발레단 정단원 발탁

서울강남지방 한우리교회 박효근 안수집사 · 최혜영 집사의 차녀인 발레리나 박세은(23) 양이 한국 발레리나 최초로 세계 최정상 파리오페라발레단(BOP) 정단원에 발탁됐다. 박세은 양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각) 오디션을 치렀으며, 응시자 130명 중 1등으로 유일하게 정단원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파리오페라발레단은 1669년 '태양왕' 루이 14세가 설립한 세계 최고(最古) 발레단으로, 아메리칸발레시어터 · 영국 왕립발레단과 더불어 세계 3대 발레단으로 불린다. 박세은 양의 정단원 입단은 발레를 자국 문화의 자존심으로 여기는 BOP의 높은 벽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BOP는 외국인, 특히 동양인에게 배타적이기로 유명하다. 단원 180명 중 외국인 비율을 5% 이하로 뽑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외국인 중에서도 거의 유럽인을 뽑는다. 발레리노로는 김용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2000년 입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발레단의 꽃인 발레리나는 워낙 경쟁이 치열해, 정단원 입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박세은 양은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세계 4대 무용 콩쿠르 중 모스크바를 제외한, 잭슨(2006) · 로잔(2007) · 바르나(2010) 등 3개 대회를 석권한 한국 최초의 발레리나다. '발레 콩쿠르 3관왕'은 현재까지도 박세은 양이 유일하다.



믿음의기업 '소문난 맛집-하늘 애찬'

영종도 최고의 유황오리전문점

인천 중구 운남동 348-1번지에 위치한 영종도 최고의 유황오리 요리전문점 "하늘애찬"을 찾아서, 바닷가 인천대교를 지나 인천 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 인천에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다.

30대 이상 주차 공간을 갖춘 것, 비교적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되게 꾸며진 하늘애찬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외부에서 보면 건물이 음식점인지 카페인지 분간하기 어렵지만, 식당입구엔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는 조형물이 상호와 함께 이곳을 찾는 이들을 반겨주고 있다.



본지 기자와 일행들이 식당에 들어서자 사장 서명희 권사께서 반가이 맞아주었다. 서 사장은 음식점 분위기는 물론 상당한 미인이었다. 또는 화장실 조차도 안방처럼 분위기가 있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늘애찬에 걸려있는 '모범 음식점' 상호가 돋보였다. 인천은 국제도시인데다 큰 행사를 치르다보니 외국인들도 소문난 맛 집, 영종도 최고의 유황오리 전문식당을 많이 찾아주며 인정받는 곳이다.

특히 하늘애찬은 단체 손님을 맞이할 160석을 갖춘 최적의 장소이다. 그 외 별실로 비즈니스 방, 단체 회의실 등, 각각 20석 규모의 방이 2개가 있으며 오리요리, 닭요리 등 13가지의 종류가 있고, 또한 '하늘코스 오리 정식', '유황오리 진흙구이', 오리 요리의 신성 '유황오리 불고기', '묵은 지 오리전골', '유황오리로스', '통훈제', 사계절 보양식 '충조전압탕' 등 7가지이다.

하늘애찬의 주 메뉴 중에 이날 기자가 먹어본 요리는 '유황오리 진흙구이'와 '유황오리 불고기', '충조전압탕' 이다. 정성이 들어간 것은 기본이요, 그야말로 보약을 맞보았다.

주 메뉴는 타 식당에서 맛 볼 수 없기에 적극 추천한다. 여기서 잊지 못할 것은 '충조전압탕'과 '유황오리 진흙구이'인데, 이는 4시간 전에, 그 외는 20분전에 예약하면 바로 식사할 수 있다. 모처럼 소문난 오리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일러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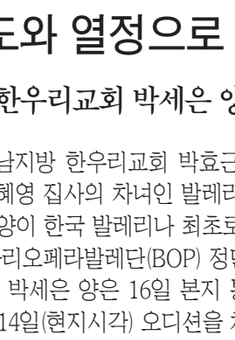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기업체에서도 그렇지만 음식에서도 신앙이 배어있었다. 상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늘애찬"은 '하나님이 베푸신 만찬의 장소'를 의미하며, 상호 옆에 붙어있는 '부(富)'를 상징하는 해바라기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라고 한다.

가격이 일반 오리 점보다는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한방 재료가 들어간 오리고기 음식의 차별화가 그것을 해소해 주었다. 하늘애찬의 또 다른 장점은 인근에 등산 코스가 있어서 언제든지 식전이든, 식후든 가족 혹은 단체가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데 용이한 곳이다. 우선 명물중의 명물 '인천대교'를 구경할 수 있고, 영종도 전망대 등 다양하다.

가기 전에 홈페이지(http://www.하늘애찬.kr)를 방문하면 도움이 될 듯싶다.

사무국장 곽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 H.P :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담임 임찬미 목사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 : 임찬미 목사
장 로 : 최원영 선교사
전도사 : 전은혜 선교사, 함다니엘 선교사
조에스더 선교사, 황연아 선교사
전도자 : 정희선 선교사, 이부자 선교사
반주자 : 박시온 박시내 정은주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9:00
주일저녁집회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주일오후2:00
심야기도회 매일오후9:00
학생부예배 주일오전9:00
축복성회 매주금,토 저녁9:00~
주요예배 수요일오후 8:00
매주주일 저녁7:30~

찾아오시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칼 럼

언론은 자유의 기수

언론은 자유의 상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있다. 특히 신문방송은 자유의 기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좌편향의 흐름도 있다. 보도에 있어 각계의 반응을 모두수용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생명은 공정 보도에 있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상징은 언론이다. 언론에 자유가 없고 소통이 없다면 북한의 독제 체재와 같을 것이다. 그들의 선전 선동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실천이라는 당의 명령과 지시만 있을 뿐이다.

그들의 언론이란 인형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직 명령 지시만을 보도 방송 할뿐이다. 우리는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국으로 부상 되었으며 자유 민주주의로서의 손색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의 언론에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약속에 있어 위선과 거짓이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불신만을 안겨 줄 뿐이다.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과의 약속은 임기동안에 반드시 이루어 서로간의 신뢰가 이루어 져야한다. 우리의 언론과 방송 매체는 약 7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체널의 방송이 있다. 또한 수종의 신문이 있다. 국민들은 자유로이 모든 보도를 접하고 있다.

우리는 신문 방송을 통해 사회의 모든 정황을 평가 한다. 특히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정치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방송을 통해 비속어를 쓴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 하는 정치인은 신중한 언어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국정을 협의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마음은 아픔뿐이다. 폭력과 폭언이 난무 하듯 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은 후진국가와 다름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신중한 언어로 대결이 아닌 진정으로 국정을 협의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들은 원한다.

인격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아니다. 국익을 위한 의제라면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왕권정치에서 벗어난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는 것은 얼마나 발전한 민주주의 인가, 앞으로의 대선에 있어서 국민이 바라는 통수권자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이 여러 명이 출전 할 것 같다. 그들의 국가관이 어떠한 가를 주목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때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처참함을 경험 하였다. 철저한 국가관을 가진 통수권자가 필요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은 신뢰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모두가 법을 준수 하는데 있는 것이다. 청빈한 의로움과 진실함만이 안정 사회, 발전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청량한 계곡수는 적은 량의 흐름으로 도랑을 이루고 개천을 이루어 강으로 향하며, 나아가 넓은 바다의 경이로운 자연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진실한 말은 인격으로 형성되어 개천을 통해 강을 이루어 나아가 자유의 기수로 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자유가 방종이 된다면 독재보다 못한 처참함이 있을 것이다. 자유는 법을 지켜 행할 때 진정한 자유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평화와 발전이 있는 것이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새누리당 경선 혼란 MB 책임도 커

창성동별관 '박근혜 X-파일' 프로젝트 중단을 명령해야

새누리당은 당헌상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그러나 국정 성패에 대하여 대통령과 당은 국민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여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상호보완적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설사 당헌에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수평적 보완관계로 명시 했다고 해서 결코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집권초기 18대 총선에서 자행 된 친박(親朴) 학살공천은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침몰 위기에 몰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넘어가지 이전 까지만 해도 안상수, 홍준표 당대표 뒤에서 수렴청정을 해 온 것이 사실이며, 원내 주류 친이계 특임장관을 통해서 주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정권은 집권 이래 현재까지 박근혜 고사작전을 펼쳐 온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는 창성동 정부청사 제3별관에 박형준, 이동관, 이방호 등과 이재오 특임장관, 국무총리 공직복무관리관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등 MB별동대를 만들기도 했다.

2011년 1월 26일자 중앙일보는"특보들 모인 창성동 별관 정권 재창출 아지트 되나"는 제목의 기사에서 창성동 제3별관에 박형준, 이동관 등 특보단이 한나라당 정권재창출과 박근혜 대항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창성동 별관에 입주한 이동관, 박형준 정권재창출 임무…'박근혜 대항마 키워' "2011.1.26 조선,"靑 밖의 靑'창성동 별동대'를 아시나요" 2011.2.12 동아, "남은 임기 튼튼하게…창성동 별관" 2011. 2.12. 동아, "창성동 특보팀, 첫 소집 MB 수시로 들르겠다" 2011.2.23 조선 등 창성동별관 기사가 폭주 했다.

그 이후 창성동별관 "청와대 특보가 줄줄이 총선출마" 2011.12.7 조선, 이후 이들에 대한 후속기사가 없는 가운데, 박형준, 이방호 등이 공천에 탈락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을 한 외에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임태희가 대선출마에 나섰다.

새누리당 대선후보경선을 MB정권 2인자 이재오와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가 한 덩어리가 되어 완전국민경선제를 강요하는 가운데, 청와대 대통령실장 임태희까지 가세하여 자칫하면 MB와 박근혜 경선 2라운드로 착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신동아 2010년 4월호는 노무현은 2005년~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정원에 박근혜 죽이기 TF를 편성 한화콘도 등지에서 합숙을 해가면서 "차마 입에 담기 창피한 내용(2007.6.21 이재오)"을 만들어 네거티브 소재로 삼으려 했다.

노무현은 "유신의 독초는 제때에 뽑아버려야 한다. 2006.1.1 김정일", "반보수진보대연합으로 12월 대선에서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2007.1.1 김정일"는 지령에 따라 당시 독보적인 야권주자 박근혜를 강력한 네거티브 한방으로 침몰시키기 위해 김대업을 무색케 할 X-파일을 작성했다.

2007년 8월 20일 경선에서 노무현의 예측과 달리 이명박이 승리하면서 사장됐던 박근혜 X-파일이 이명박정권이 전리품으로 노획하여, 이를 이재오를 중심으로 한 MB계가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추가적인 네거티브 소재를 개발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창성동별관 움직임과 관련, 추가 보도는 없었지만 부산에서 발간되는 2011년 12월 1일자 국제신문에 특임장관실이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 아무런 당적도 없는 안철수를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 당내에서 "유령에 옷을 입히는 격" 이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 새누리당 경선 갈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대통령 특임장관을 역임한 MB정권 2인자 이재오와 대통령실장 임태희의 완전국민경선제 가세가 MB의 암묵적 지지와는 무관한 것인가? 창성동 별관에서 이재오와 특보단이 박근혜 대항마 찾기를 빙자하여 만들어 낸 박근혜 죽이기 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있는 것인지를 답해야 한다.

우리는 1997년 12월 15대 대선 당시 YS가 정치적 양자 이인제에게 경선에 불복하고 출마토록 (허용)하여 이회창을 낙선케 한 '더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MB는 박근혜와 단독면담(2011.6.4, 2011.12.22)시 어떤 형태로든 정권재창출에 관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안다. MB로서는 의례적인 립 서비스건, 진정어린 약속이건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MB가 이재오를 제어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임태희에게는 최소한의 영향력이 남아 있다고 보며, 작금의 형세가 창성동별관에서 진행 된 정권창출관련 프로젝트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 만약 항간에 유포 된 안철수를 대항마로 키웠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 박근혜 죽이기 X-파일 실체가 입증 된다면 MB의 퇴임 후 안전은 누구도 보장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칼럼리스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교회세습 일생일대의 큰 실수"공개사죄

김창인 원로, 12일 교단 원로목사 모임에서

'충현교회 회복을 위한 긴급성명서' 발표



예장합동 교단의 대표적 교회인 충현교회 원로이자 설립자인 김창인 목사(사진)가 12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차남 김성관 목사를 충현교회 당회장에 위임한 것을 나의 일생 최대의 실수로 생각한다며 공개 사죄하고, 김성관 목사에게 속히 교회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김창인 원로목사(97)는 12일 오전 경기도 이천의 한 교회에서 열린 합동 교단 원로목사모임에서 '충현교회 회복을 위한 긴급성명서'를 발표, 한국교회 앞에 회개의 목소리를 냈다.

김창인 목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것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나의 잘못을 한국교회 앞에 인정하고, 충현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나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다"며 성명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충현교회 4대 목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목회 경험이 없고, 목사의 기본 자질이 되어 있지 않은 아들 김성관 목사를 무리하게 지원하여 공동의회를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 아닌 찬반기립 방식으로 진행, 위임목사로 세운 것을 나의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로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크나큰 잘못이었음을 회개한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창인 목사는 아들 김성관 목사가 이제는 교회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김성관 목사는 2012년 4월 20일자로 은퇴 연령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2012년 12월 31일 부로 충현교회 당회장, 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직책에서 떠나라. 물러나라. 너는 임기연장을 꿈도 꾸지 마라. 나는 충현교회 설립자요, 원로목사요, 아버지로서 이것을 강력하게 명령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교회 세습 이후, 부자 간 갈등의 골 깊어져

충현교회 김성관 목사의 부임은 최근 교계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대형교회 세습의 시초였다.

충현교회는 김창인 원로목사가 1987년 은퇴한 이후, 이종윤 목사와 신성종 목사가 차례로 담임목사로 부임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중도 사임하고, 1997년 김충인 목사의 둘째 아들인 김성관 목사가 당회장직을 위임받게 됐다.

이후 단독 목회 경험이 전혀 없었던 김성관 목사를 반대하는 측과 지지하는 측 사이에 내홍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결국 2000년 1월에는 김성관 목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아버지인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목사 간에 교회 운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도 빚어졌다.

2009년에는 김창인 목사가 왕성교회(길자연 목사)에서 명예원로직을 수락하자, 일각에서는 '부자간의 갈등으로 충현교회 내에서 원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로 충현교회 관계자는 교회 회칙상 원로목사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등이 삭감, 중단되었다가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지급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회재산 횡령 등을 이유로 김성관 목사를 검찰에 고소했던 김규석 장로 등 일부는 김성관 목사가 당회장 은퇴를 앞두고, 원로목사의 자격이 되는 20년 임기를 채우기 위해 유지재단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 매체 임수경 등 비호에 혈안

예상했던 대로 북 대남 선동기구 중 하나인 '조선중앙통신'이 "색깔론은 출로가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보수 패당의 색깔론 광증이 극도에 이르렀다며, '괴뢰국회'와 군부 할 것 없이 '남조선사회' 전반에 종북척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리00역도'가 직접 나서서 "종북세력이 문제"라고 지적하자 검찰이 '진보적 인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보수언론을 내세워 주사파의 정권탈취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 국회는 주사파 제명결의안을 준비하고 軍도 정신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다. 논평은 '리00쥐새끼패당'이 색깔론소동으로 동족대결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여론을 분산시키고 정권심판론을 잠재워 선거정국을 유리하게 돌려세우려는 엄청난 죄악이지만, 집권야욕에서 비롯된 히스테리적 색깔론 정치테러는 탈출구가 아니라고 주장 하였다.

칼럼리스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지저스타임즈, 2012 제3차 이사회 열어

언론의 역할 중요해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



한국기독교 대변지로서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지저스타임즈(이사장 정기환 목사)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천안승리교회(오상렬 목사)에서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2012 제3차 이사회로 모여 먼저 감사예배를 드렸다.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인도로 오전 11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상임이사 송요엘 목사(국제복음선교회 사무총장)가 기도를, 상임고문 유영섭 목사(순장총회 총회장/화성 안천교회)는 봉독한 히브리서 10:35~39절 말씀을 주제로"물러서지 않는 시대정신"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유 총회장은"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고 했다. 언론의 역할이 편파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주관적이 많다. 또는 사실을 왜곡하는 일,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언론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의 사회 현상이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소상하게 밝혀서 드러내고 알려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좋은 것은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바른 사회, 또 온전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유영섭 총회장은 언론은 지지하는 층의 대변역할이 되어야 한다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의 언론으로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지저스타임즈는 바로 그러한 면에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신문을 통해서 바로 전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대변의 역할이 되어 세상에 비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저스타임즈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 되며, 이 시대를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리 모두는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복음사역을 언론이란 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란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고 그 때를 준비하는 귀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며 말씀을 전했다.

이어 신문방송 운영을 위해 특별헌금 시간을 갖고 운영이사 유윤주 목사(지구촌교회)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사장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본지대표이사/한국기독교언론기자협회 감사)의 인사가 있었다.

이날 정기환 이사장은 상임고문 유영섭 목사, 상임이사 오상렬 목사, 운영이사 유윤주 목사, 논설위원 최순길 목사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오상렬 목사(상임이사), 서영웅 목사(상임이사)는 특별기도를 인도하면서 신문방송사를 위하여, 해외 25개국 지사를 위하여, 전국 21개 지사를 위하여, 전국에 있는 신문 구독자들을 위하여, 이사 회원 교회와 장소를 제공한 승리교회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회를 갖고 부이사장 정대성 목사(온누리찬양교회)축도로 마쳤다.

이어 2부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사회로 운영이사 서명범 목사(공주공덕교회)의 기도로 이사회가 개회되어 신문과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한 보고와 안건토를 갖고 7월 19일(목)~20일(금)까지 강원도 양양 하조대소풍(대표 송광우 장로 본지 상임이사)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가질 예정으로 회무를 마쳤다.

한편 한국기독교언론기자협 임원들, 기자들도 동참하며,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참석한다는 이사회 회원도 있다.



국복선 태안에서 부흥축제 세미나 열어

국제복음선교회(이하-국복선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는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열린문교회수양관(원장 계승창 목사)에서 "2012 큰 복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주제로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가졌다.

첫날 백종만 목사 인도로 도착감사예배를 시작하여 신용주 목사를 특별강사로 초청"비종교(불교)를 통한 전도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시작됐다.

국복선 이날 부흥축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신일수 목사는"교회부흥은 기적으로부터"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저녁에는"성령충만의 밤"이란 주제로 박장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갖고 통성으로 1.은사가 불일 듯 하옵소서, 2.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3.응답의 단비를 주옵소서 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둘째 날 오전 6시 계승창 목사(열린문교회수양관)의 인도로 김보화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송요엘 목사가 중보기도를, 최준호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국제복음선교회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는 회원간의 화합을 위하여 척사대회와 족구, 피구 대회를 열어 시상을 갖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유정의미를 거두는 부흥축제 세미나가 되었다.

이날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는 2012 부흥축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렸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대적 명령을 주신 공동체"국제복음선교회"를 함께 받들어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으로 번성케 하시며, 생육하고 흥왕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서로 웃고, 서로 존경과 섬김으로 사랑하고, 권면과 위로의 공동체로서 그 기능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큰 용기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덕목 있는 목회, 품격과 인격으로 up되어 배나 칭송받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求 愛

동성애는 이 원리를 배반한다.
창6: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6: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6: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창6: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12-2 지저스타임즈가 뽑은 6월의 추천작품(작가 서명범 목사. 공주공덕교회 담임)



피종진 목사 7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2(월)~5(목)	미국(U.S.A) Nyskc Movement 2012(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HQ 뉴욕) 장소 : 미국 Indianapolis Butler University
5(목)~8(주)	미국(U.S.A) 보스톤 좋은땅한인교회(이오네시모 목사) ☎(978)930-6613
6(금)~7(토)	미국(U.S.A) 보스톤 합동총회신학교(총장 김수학 목사)
13(금) 오전	노인복지선교회(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3(금) 저녁	서울 중흥교회(엄신형 목사) ☎(02)476-7131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목회자부흥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14(토) 오후	SBS TV 방송인행사(서울 가든파이브)
16(월) 오후	총회부흥사연수원(중앙총회 총회장 조갑문 목사) ☎(031)964-2782
16(월)~18(수)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옥순 목사) ☎(02)436-1777
19(목)~20(금)	인천 영광교회(조강수 목사) ☎(032)575-1654
23(월) 오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상길 목사) ☎(031)947-0091 주최: 21C세계부흥사협의회(대표회장 성경모 목사)
23(월)~25(수)	충주 금식수양관(원장 김승자 목사) ☎(043)853-3990
27(금) 철야	부산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 ☎(051)333-3736
30(월)~8.2(목)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홈등록 www.kcnn.co.kr
02) 2203-9811 / 02) 2203-9822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민족의 완전복음화를 위하여! 성령대망집회가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다시 불어와 우리민족교회들이 영적대각성과 부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이 강산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여! 성령의 회오리바람 다시 불어라!
한국교회 영적대각성 부흥을 위한
성령대망회!
Holy Spirit

제1차 목회자 중심의 전문 컨퍼런스입니다.(오후 2시 시작)
일시〉 2012. 5. 28(월) ~ 31(목) 3박4일 장소〉 원주 명성수양관
제2차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오후 7시 30분/강사진은 다릅니다)
일시〉 2012. 6.18(월) ~ 22(금) 저녁 5일간 장소〉 서울 나들목교회
제3차 사모님들을 위한 특별집회입니다.(오후 2시 시작)
일시〉 2012. 7. 2(월) ~ 5(목) 3박4일 장소〉 원주 명성수양관
제4차 신학대학원생들과 청년대학생들을 위하여 (오후 2시 시작)
일시〉 2012. 8. 27(월) ~ 30(목) 3박4일 장소〉 원주 명성수양관

제한인원 2,000명 비 용 1인 10만원 (부부 18만원 / 선착순 접수마감)
온 라 인 국민은행 825301-04-036708 (예금주: 한국강해설교학교)
등록방법 홈(www.kcnn.co.kr)에 들어오셔서 일정별 / 차수별로 등록 후 인터넷 입금
숙 박 숙식일체, 간식, 교재 제공
※ 제2차 평신도 저녁집회 : 참가비 7만원 (숙식없음) / 제한인원 : 700명
주최주관 한국강해설교학교, 전문목회연구원, 크리스챤뉴스위크신문사, Knewstv

■ 〈저녁집회〉 주 제 : 우리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 월요일 저녁 : 김삼환목사 (명성교회 개척자 / 당회장)
· 화요일 저녁 : 정필도목사 (수영로교회 개척자 / 원로목사)
· 수요일 저녁 : 김인중목사 (안산동산교회 개척자 / 당회장)
■ 주 제 : 왜 성령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가? - 성령목회의 그 이유
· 개회예배 : 월요일 (PM 14시) 박종순목사 (충신교회 원로목사)
· 폐회예배 : 목요일 (AM 12시) 길자연목사 (왕성교회 당회장)
· 주제강의 : 월요일 (AM / PM) 전광훈목사 (사랑제일교회 당회장)
■ 〈특별강좌〉 주 제 : 내가 체험한 성령의 일하심 '사역' (1차, 3차 강사진)
· 화요일 : 장경동목사 (대전중문교회 당회장) / 권태진목사 (군포제일교회 당회장)
· 수요일 : 고명진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당회장) / 이윤재목사 (분당한신교회 당회장)
· 목요일 : 정주채목사 (향상교회 당회장) / 이영훈목사 (여의도순복음 당회장)
■ 〈새벽집회〉 주 제 : 내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 '기적' (1차, 3차 강사진)
· 화요일 : 한태수목사 (은평성결교회 당회장) / 정성진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당회장)
· 수요일 : 양병희목사 (영안장로교회 당회장)
· 목요일 : 이승희목사 (대구반야월교회 당회장) / 최이우목사 (종교감리교회 당회장)

※ 영적대각성집회 준비위원회-12개 교단별 위원장
〈합동〉 김인중목사 (안산동산교회 당회장)
〈고신〉 정주채목사 (향상교회 당회장)
〈침례〉 장경동목사 (대전중문교회 당회장)
〈기장〉 이윤재목사 (분당한신교회 당회장)
〈순복〉 이재창목사 (수원순복음교회 당회장)
〈백석〉 양병희목사 (영안장로교회 당회장)
〈통합〉 정성진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당회장)
〈감리〉 최이우목사 (종교감리교회 당회장)
〈성결〉 한태수목사 (은평성결교회 당회장)
〈합신〉 권태진목사 (군포제일교회 당회장)
〈대신〉 박중식목사 (평촌새중앙교회 당회장)
〈초교〉 백광진목사 (잠실동교회 당회장)

■ 저녁 주강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부산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목사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 특별초청강사 (낮,새벽) - 차수별로 강사진은 차이가 있습니다.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거룩한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
분당한신교회 이윤재 목사
증교교회 최이우 목사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은평성결교회 한태수 목사